

중기·소상공인에 추석 자금 96조 푼다

서민가계 지원 470만 가구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 지급
은행 신규자금 37조 공급...기존 대출·보증 56조 만기 연장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추석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

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 불이행시 보합금을 지급하는 신용보증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 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

차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 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채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가계 지원과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 장려금(CTC)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 가구, 3조 2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은누리상품권을 추석 기간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7543억원어치 판매한다. 전년 추석 대비 각각 420억원, 6794억원 큰 규모다. 시장 관심이 큰 은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모바일 한정)으로 높인다.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색·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할인 행사를 열고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24.60 (+8.29)	↑ 금리(국고채 3년) 1.17 (+0.05)
↑ 코스닥 588.32 (+5.41)	↓ 환율(USD) 1211.20 (-6.60)

목포 고용률 '최저' 실업률 '최고'

순천·화순도 고용환경 열악

통계청 상반기 지역 고용조사

전남에서 목포의 고용환경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은 전남 최저이고, 실업률은 최고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가 실업률을 끌어올리면서 지역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목포 고용률은 56.7%로 전남에서 가장 낮았다.

목포 고용률은 2018년 하반기 때 54.9%에서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2.4%에서 2.8%포인트 올랐다. 일자리가 없다보니 실업자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인근 영암은 고용률 64.4%, 실업률 1.8%였다. 영암은 근무기준 고용률이 거주기준보다 무려 32.6%포인트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근무기준 취업자는 4만8000명인데 거주기준으로는 3만2000명으로, 1만 6000명이 목포·무안 등 인근 지역에서 영암 대불산단으로 통근하는 것이다.

목포 다음으로 순천과 화순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았다. 고용률은 각각 60.6%, 62.6%였고, 실업률은 각각 2.5%, 2.4%였다.

특히 화순은 3분기 연속 실업률(1.0→1.4→2.4%)이 올라 13위에서 3위로 쏙 구졌다.

올 상반기 전남 시·군 고용률

(단위:%, 자료 통계청)

신안	77.3
고흥	75.6
해남	73.8
강진·함평	70.0
진도	69.9
곡성	69.6
보성	68.7
장흥	68.2
완도	67.7
영광	66.8
구례·장성	66.5
나주·담양	66.0
광양·영암	64.4
무안	63.2
여수	63.0
화순	62.6
순천	60.6
목포	56.7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안(77.3%)이었고 이어 고흥(75.6%), 해남(73.8%), 강진·함평(70.0%) 순으로 이들 지역은 70%를 웃돌았다.

1년 사이에 고용률이 가장 오른 곳은 곡성(65.9→69.6%)으로 3.7%포인트 개선됐다. 반면 인근 구례(68.6→66.5%)는 고용률이 가장 낮아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농협 대표들 '필승코리아펀드' 가입 붐몰



NH농협은행 전남·광주영업본부는 27일 NH농협은행 나주혁신센터지점에서 'NH-아undi 필승코리아펀드' 가입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영훈 NH-아undi자산 운용 대표, 김일수 광주본부장, 박길수 전남본부 경영본부장,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최영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등 광주·전남 농협 대표들이 참석했다.

'NH아undi 필승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역진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농협금융은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이 펀드 이름을 '필승코리아'로 지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출신입 연봉 대기업 평균 4086만원·중기 2769만원

대기업과 격차 더 커져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국내 대기업의 올해 대출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평균 4000만원을 웃돈데 비해 중소기업은 30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신입직 초임을 밝힌 대기업 125개사의 대출 신입사원 첫해 연봉(기본 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제외)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의 같은 기업들의 평균 초임 연봉(4048만원)보다 0.9%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금융 분야가 평균 43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에너지 4264만원 ▲자동차·운수 4163만원 ▲제조 4089만원 ▲기계·철강 4088만원 ▲조선·중공업 4050만원 ▲유통·무역 40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올 하반기 대출 신입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152곳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초임은 2769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2790만원)보다 0.8%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신입직 평균 연봉 격차는 지난해 1258만원에서 올해는 1317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기아차, 직원호칭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축소

직급 체계도 4단계로 줄여

현대·기아차가 다음 달부터 일반직 직원 호칭을 매니저와 책임매니저 2단계로 통합한다.

2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직원 호칭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5단계에서 매니저와 책임매니저로 축소한다. 연구직 호칭은 이미 연구원과 책임연구원 2단계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 중심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촉진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3월 임원 직급단

계를 축소한 데 이어 직원 인사제도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직급·호칭 단계 축소와 절대평가 도입, 승진 연차 폐지 등이 주 내용이다.

직급 체계는 기존 '5급사원(초대졸)-4급사원(대졸)-대리-과장-차장-부장' 6단계에서 4단계(G1~G4)로 축소하기로 했다. 5급과 4급사원을 묶고, 차장·부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G1과 G2는 매니저, G3와 G4는 책임매니저로 호칭된다.

앞서 지난 3월 임원 체계를 이사대우, 이사, 상무를 상무로 통합해 사장 이하 6단계 직급을 4단계(사장-부사장-전무-상무)로 축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